

11.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19년 4월 12일
- 발 의 자 : 이시복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규학 의원, 김대현 의원,
김성태 의원, 김지만 의원, 김혜정 의원, 송영헌 의원,
이영애 의원, 장상수 의원, 홍인표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6일
- 상정일자 :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4월 29일)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시복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시설 등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시점에,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음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,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(가이드라인)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장애인친화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중앙정부 및 구·군, 비영리법인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□ 주요 검토사항

- **안 제3조**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- **안 제4조**부터 **안 제6조**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을 포함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**안 제7조**와 **안 제8조**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과 조성기준에 따라 구·군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,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

규정하며,

- **안 제9조**는 장애인친화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구·군의 장애인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10조와 안 제11조**는 중앙정부 및 구·군, 비영리법인, 단체, 시민,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‘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조성협의체’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과 이동권 보장강화, 장애인 인식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간 대구시에서는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개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,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, 장애인 자립생활 등 46개 사업에 2,508억원 (국비포함)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,
 -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2위이고,
 -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광역 1개소와 기초센터 8개소를 운영하며,
 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BF) 197개소를 인증받는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, 아직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.

-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, 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과 함께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, 각 기관·기업과 협력하여 일상 속 곳곳에서 배리어 프리(barrier free) 시설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.
- 다만,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더불어,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장애인 친화도시 구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	의	답	변
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인데,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친화도를 위해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지?		장애인단체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있지만,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없음.	
보건복지부에서 17개 시·도를 평가하도록 건의해 주시고, 장애인친화도에 있어서 대구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.		장애인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있어서 대구가 전국 2위이지만 아직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많으며,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.	

5. 토론요지

-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